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통

손봉호 (대표주관)

최근 '소통'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다. 요즘 '안전'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본래 안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고로 그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기 때문이다. '소통'도 비슷하지 않나 한다. 소통은 항상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즘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구태여 오늘날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유독문자로 욕을 하고 온갖 비열한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도 별로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신 수단이 더 발달되어 있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무선 전화 등의 매체에 관한 한 우리를 따를 나라가 별로 없다. 글과 말도 쉬워졌다.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나 말은 사람들이 읽고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안간힘을 쓴다. 말이 이렇게 많아진 적도 없고, 이렇게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지금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별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 민주화, 북한 위협 등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했고 그들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

지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화는 해결되었고 북한의 위협도 과거보다는 덜 심각한데도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외롭고 갈등은 더 크며 단합이 잘 되지 않아 공생이 위협을 받는다. 형식적 조건은 잘 갖추어졌는데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명한 대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진심으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거나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만 중요하고 잘났으며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차세 중심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며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경쟁에서 이겨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조건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했다. 적기에 내린 비와 풍부한 햇빛으로 풍년이 들어야 부자가 되었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이해문제로 겨룰 이유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오늘날에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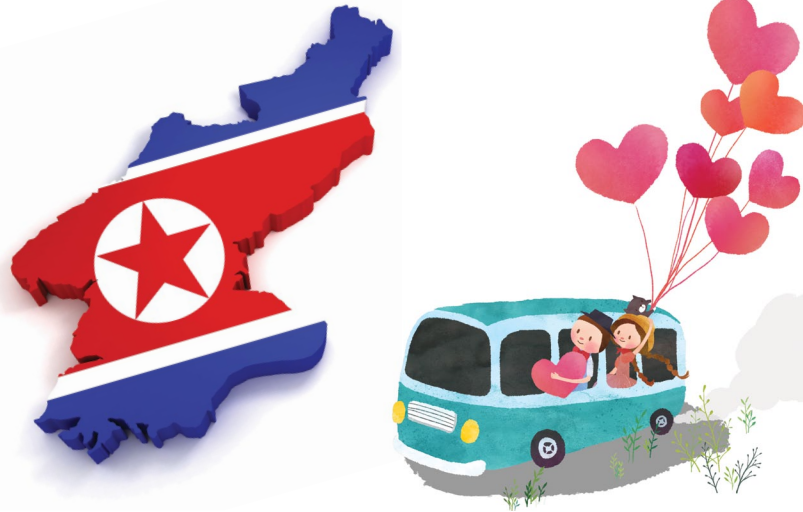
관계가 결정적이 되었고 그것이 주로 이해관계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자 간에는 전략적 교환만 있을 뿐 진정한 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외롭고 불행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교회와 교단 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도 '내가 잘 섬겨야 하고 복과 은혜도 '나'와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하며 성장도 '우리 교회'만 해야 하고 심지어 선교, 구제, 전도도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웃'의 축복, '이웃 교회'의 성장, '다른 교단'의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나 교단 간에도 경쟁은 있어도 소통은 없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바울이 권고하는 데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빌 2:3-3) 가능하다. 바울은 그런 것이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친다. 말을 많이 하고 대화 기술이 뛰어나야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실로 배려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것이 그런 소통이다. 그런 소통이 이웃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길 때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표지인물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화해를 말하다 _니콜라스 월터스토프 Nicholas Wolterstorff

SPECIAL

- 16 기획칼럼 직장인들을 향한 선교에의 부르심: 개발협력과 선교 2.0_이우성
- 20 기획칼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본 국제개발협력 교육과 YGA_김두연
- 24 기획칼럼 개발도상국 환경 분야 국제협력 및 선교 시사점_강수일

COLUMN

- 02 대표주간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통_손봉호
- 30 깊이 들여다보는 북한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_한화룡
- 34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 (www.iguw.de)_최용준

CULTURE

- 50 불편 레시피 세계관 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함께
- 54 유머 “보나빠띠”_손봉호

BOOK REVIEW

- 38 서평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_황영철
- 42 서평 성경의 눈으로 본 침단의학과 의료_박준현
- 46 서평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_문석운

NEWS

- 55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대표주간 손봉호
- 발행인 김승욱
- 편집인 신효영
- 편집위원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교정/교열 김선경
- 인턴기자 김소라
- 디자인 황정희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화해를 말하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_Nicholas Wolterstorff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미국의 뉴브런스워 신학교와 그가 세운 한국 교회들이 공동 주최한 제7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를 주제로 열렸다.

월드뷰에서는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예일대 신학대학 명예교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를 만났다.

I . Reformed worship : Is it still relevant?

예배, 그 전통은 무엇이고 계속 지켜져야 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적절한가?

모두가 개혁교회 예배를 이야기한다. 개혁교회 예배 형식, 예전은 무엇일까?

동방 정교회 예배나 가톨릭교회의 예배와 달리 개혁교회는 주일 예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가 없다. 그렇다고 개혁교회 예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중이 중심이 되어 적절하다 여기는 제안을 수용하여 형성된 개혁교회의 예전은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 냈다. 다양한 개혁교회의 예전 중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개혁교회의 예전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꼽아봤다.

개혁교회 주일예배의 아홉 가지 특징

하나,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한다.

“개혁교회 예배”라는 말을 들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설교만을 떠올린다. 설교가 개혁교회 전통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송의 중요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둘,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은 성도들이 직접 예배의식을 행함으로 참여한다.

회중 찬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모인 회중이 예전의 실행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전은 성직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16세기 초 서양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단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실행하는 데 ‘참여(act)하러 가는 것’이다.

셋,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주체는 신자들의 공식 기관인 당회다.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조직화된 지역교회 회중이라는 공식적인 모임이다. 여기서 공식적인 모임이란, 교회구성원들이 선출한 장로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권위 및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당회는 예배를 책임지며, 장로들은 회중의 권고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에게 예배인도와 설교, 성례 집행, 축도 등을 맡기는 것이다. 평신도의 참여가 예전의 실행에 본질적이며, 평신도가 당회의 장로들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예배는 회중에 속한다.

“개혁교회란”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운동으로 부터 시작한다. 루터의 개혁 직후, 그에 고취된 또 다른 개혁운동이 취리히의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칼빈 등에 의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개혁교회(Reformed)”라 칭하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Presbyterian)”, 영국에서는 둘을 혼용하였다. 유념할 것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결국 같은 가족이며, 그 시작이 16세기 초 스위스 교회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방 정교회 예배라면 정교회 공식문서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예전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 예배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다. 개혁교회 전통을 지닌 어떠한 교파에서도 회중을 위한 주일 예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고 지역별로 자율성을 존중하기에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것이 개혁교회 예배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넷,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일상적 삶과 예전이 서로 어우러진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성(聖)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속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나 일상의 삶을 저버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혁교회예배의 독특한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예전적 예배와 일상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둘 사이에 쌍방향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일의 삶이 예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예전의 실행은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한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구절을 교인들의 언어로 소리 내어 봉독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설교를 한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이 둘은 각기 서로를 지향한다.

여섯,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하나님에 예배의 주체로 이해된다.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비판, 간구 등을 고백했고, 목회자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예배』(Our Worship)에서 “집회에서 회중은 단지 그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기록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현존하신다(present)는 의미를 넘어 활동하시며(active) 회중과 소통하신다(interact)는 의미다. 우리의 안과 곁에서 행하셔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일곱,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epiklesis)는 예배의식의 필수요소이다.

하나님이 예전의 행위자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심이 결코 우리의 예전적 행위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역시 개혁교회 전통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을 잘 반영한 것이 에피클레시스(epiklesis), 즉 성령임재 기도이다.

여덟,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죄의 고백과 중보기도는 예배의 필수요소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개혁교회 예배에는 죄의 고백 후 목회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중보기도도 있는데, 이것은 교인들뿐 아니라 온 교계와 인류,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아홉,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지는 않는다.

칼빈은 평신도들이 일 년에 한 번만 성만찬을 하는 당시 가톨릭 관습에 강하게 반대하며 매주 성만찬을 거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가 성만찬을 일 년에 네 번 행하고 다른 모든 주일에는 설교 의식을 행하도록 정한 이후 많은 개혁교회들이 동일한 관행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새천년의 개혁교회 예배, 오늘날, 그리고 한국에서 여전히 적절한가?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의 역사적 예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모임으로, 예전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예전을 실행하는 참여자다. 개혁교회 전통 초기부터 시편과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이었다. 예배하러 모일 때 예전을 실행하기 위해 잠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멈추지만, 우리 삶의 걱정이나 근심, 기쁨과 슬픔, 비판과 갈망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반대로 예배 후 흠어지면 우리는 그동안의 예전적 활동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서 행해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예배를 위한 모임과 흠어짐은 매우 중요하다. 예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린다. 그러기에 성령임재 기도인 에피클레시스(epiklesis)는 개혁교회 예배의 필수요소이다.

미국에서는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 어떠한가. 개혁교회의 방식이나 예전이 여전히 적절한가? 아니면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예전의 특징들을 간직한 개혁교회 예배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매우 귀중한 유산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성만찬의 빈도에 있어서는 츠빙글리보다 칼빈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주장대로 예전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다니는 미국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Michigan)의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한다. 재정 및 장소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성만찬의 중요성을 공동체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II. The Bridge of Shalom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화해

본연의 자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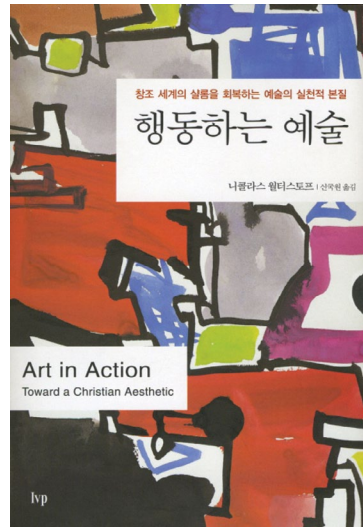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세우고 그 기초강연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곳은 한 치도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철학도, 예술도 모두 그 본연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명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분투하면서 그 전통들 가운데 남아 있는 소중한 요소들을 전유(appropriate)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때까지』 머리말 중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샬롬’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셨다. 정의는 흑독할 수 있다. 하지만 샬롬은 정의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평화로이 향유(enjoyment)하는 것이며, 샬롬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정의는 인간들에 대한 공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자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하며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 도덕적·윤리적 공동체를 넘어 책임질 줄 아는 공동체(responsible community), 다양한 존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끊임 없이 ‘존중(respect)’을 강조한다. 이 샬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을 손쉽게 가늠할 수 있다.

Editor's Comment



『행동하는 예술』, IVP

창조 세계의 샬롬을 회복하는 예술의 실천적 본질을 기술하였다. 기독교 문화는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일상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현대 예술은 고급 예술제도 안에서 예술을 감상의 위치에 올려놓고 일상에서 분리시켜 범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술의 사명은 변혁과 샬롬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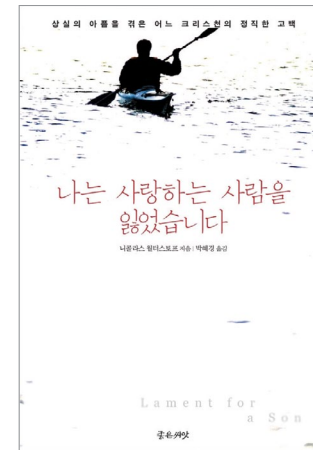
세월호의 슬픔을 이해하다

31년 전 등반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고통을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고 들었지만 불가능했다.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보기엔 슬픔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화가 나면 화내고 때리고 두려우면 도망치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사랑하는 만큼 슬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슴에 큰 구멍이 뺨 뚫려버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책도, 위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점에 가보니, 슬픔을 극복하는 7단계 전략이니, 9단계 전략이니 하는 책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온통 나에게 대해서만 얘기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죽은 내 아들인데 말이다.

자녀가 몇 명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사고 당한 아이를 빼고 4명이라고 답해야 할지, 5명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식이 4명이나 더 있지 않느냐는 위로의 말은 더 큰 고통이었다. 자식은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구슬이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 말고 그분들이 앓은 슬픔에 함께 앉아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다.



Editor's Comment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좋은씨앗

이 책은 아들을 잃은 윌터스토프가 자신의 슬픔을 단순하면서도 정직하게 풀어낸 글이다. 읊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에 대한 정직한 태도로 고통과 불의를 깊이 묵상하였다.

노란 리본, 공공의 신학

평화로운 사회는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서로에 대한 적의가 없을 때 구현된다.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며, 정의와 평등 없이 자유만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사자와 독수리(권력자)에게 아무나 잡아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국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말고, 심지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였다. 교회는 정부나 집권당의 권력에 기대어 그들을 대변하거나 무작정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를 삼가며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샬롬은 인간의 모든 관계, 곳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인간의 존재 자체이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평화는 정의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 그저 올바른 관계에 머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완전한 샬롬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 샬롬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즐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즐기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때까지』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III. [insert] Action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나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 논의를 현재 서구문화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의식적으로 기독교적 관심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 노력하였다. 다양한 주제-미학, 존재론, 인식론, 교육철학, 신학, 기독교 철학 등-를 다뤘으며, 특히 사회, 정치, 문화 속의 행동과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진리나 지식,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가치판단에 절대적이며 선형적인 초월적인 기초가 있다는 정초주의 인식론의 몰락보다는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초주의와 자유주의의 무너진 터 안에 대안이 보이지 않거나 미덥지 않다는 불안이 문제다. 이 후기 자유주의 시대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면, 개혁주의적 인식론, 실천지향적 이론에 관한 논의, 대화적 진리이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과 현실의 대화를 기본 골격으로, 전통의 지혜에서 현실의 위기를 치유하며 미래를 열어갈 비전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종교는 단지 추론이나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재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종교가 존재하며 철학은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다원적이다.

성경이 이론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경의 진리가 이론을 만드는 일과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 학자의 종교적 신앙이 이론을 고안하고 고찰하는 일에서 통제적 믿음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선포하는 증인(witness)이며, 그 질서를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agents)이자, 그 질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자(evidences)이다. 증인, 대리인, 증거자의 삶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부르신바 소명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방하는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과 같지 않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같은 신앙을 토대로 해도 다양한 이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의 정립이란 학문 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 내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은총 아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이해만이 세계관과 삶의 관점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개혁신앙의 영향으로 신앙과 삶 전체를 성경 진리에 입각한 철저한 성경 중심적 전통에서 자랐다. 이 전통에 따라 성경의 기본진리 위에 철학, 세상과 문화와 사회를 성경의 빛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전통을 긍정과 부정, 그리고 구속적 활동인 창조, 타락, 구속의 특이한 변증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삶과 학문에 투영하는 자, 세계 투영 행위자

신앙과 학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학과 기독교 철학의 지식이 너무 빈약한 것도 현재 상황의 주된 원인이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니 신앙의 넓은 함축과 적용범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 연관성을 보지 못하여 오해와 왜곡이 많다. 두 번째로 상상력의 부족이다. 학문을 단지 기독교적 맥락에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적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창조성이 필요하다. 일반 학문의 경우, 성경을 각별히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신학적 또는 교파적 논쟁에 휘말려 소모적 논의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의 내용이 전이론적(pre-theoretical)이라는 도어베르트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라 믿었던 것을 개정하거나 바꾸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신앙을 온전히 실현해내지 못하기에 완전한 이론에 도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학문을 할 때의 자세이다. 기독교학문은 손에 잡히는 실재라기보다는 결단이다.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써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학문의 대헌장 magna carta :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재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세계와 그 통일적 구조, 그것을 설명해 주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 있으신 살롬의 한 구성요소이다.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삶이 시든다. 추구하는 로고스가 실천(praxis)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을 근거로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빠지기 쉬운 엘리트주의를 지양하며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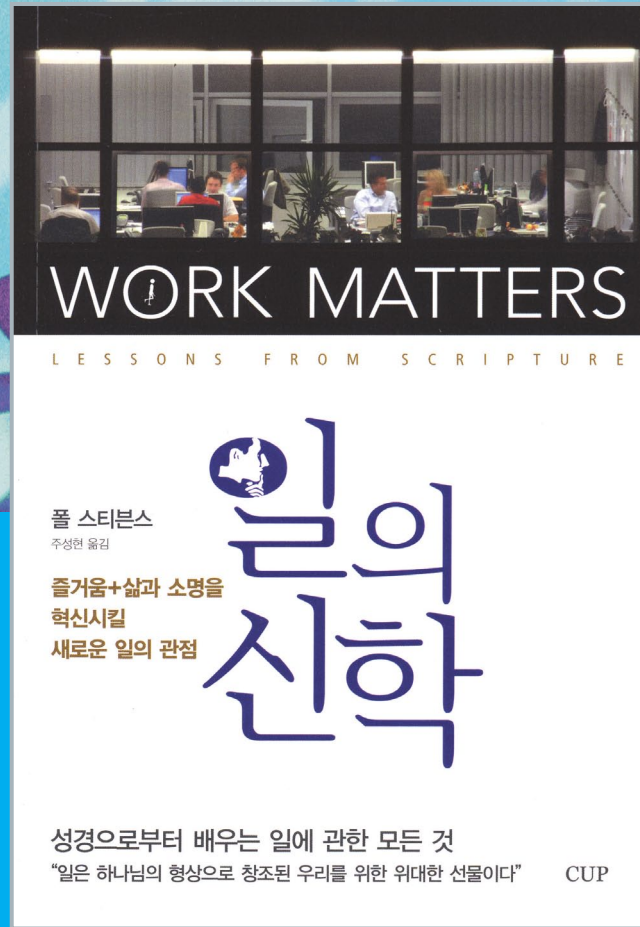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이 시대의 대표적 기독교철학자로 현재 예일대 신학대학 명예교수이자 버지니아 대학 부설 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옥스퍼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등에서 철학을 가르친 저명한 교육자이자 저술가로, 미학, 인식론, 정치철학, 종교철학, 형이상학, 교육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정의와 평가의 입맞춤 때까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행동하는 예술』 등이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와일드 강좌, 세인트앤드류스대학의 기포드 강좌, 예일대학의 테일러 강좌, 프린스턴신학교의 스톤 강좌 등이 유명하다.

※본 내용은 제7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의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강연과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며, 신국원 교수님의 감수로 구성되었습니다.

WORLDVIEW SPECIAL



직장에서 분투하는
일터 사역자들에게!

폴 스티븐스,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일터 사역자들을 소개한 책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288면 | 12,000원

소통, 화해, 공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_시편 85편 일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사회에 '끼워 넣을' 것인가?



직장인들을 향한 선교에의 부르심: 개발협력과 선교 2.0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독교학문연구회 융합분과장)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가도 원조지원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세계의 모든 빈곤국가들에게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가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곤 국가들은 한국을 좋아한다. 이들은 일본이나 서구와 달리 한국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므로 자신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많은 개도국 개발현장에서 한국의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 파견자들과 달리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에 현지 주민들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들을 듣게 된다. 또 해외에 자원봉사나 전문 자문위원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단순히 좋은 일을 하려고 잠시 다녀오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들의 사정과 마음을 보고는 성심을 다해 돕고 싶었다는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이런 심령을 부어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저개발국가, 빈곤국가들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계신다. 글로벌 교류·협력이 많아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특별히 저개발국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자금을 5년 이내에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ODA 예산은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ODA 자금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 NGO들이나 대학, 연구원, 전문가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교류·협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낙후지역이자 분쟁지역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경제적인 기반조차 놓이지 않았던 아프리카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 가까이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서도 이동통신 보급률은 70-80%를 넘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내전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놀라운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고 한국 청년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잠비크의 호텔 로비에서 한국 사람들을 여럿 만난 것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인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협력국가에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엔 미얀마와 라오스 등 폐쇄적인 국가들이 개방화 물결을 타면서 한국의 개발협력 NGO 단체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글로벌화는 한국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규모 또한 크게 성장시켰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3년도 출국자 수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13,834,472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규모는 2013년도 한 해만 10,563,832명이었다(2013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이것은 2008년 대비 57.6%나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37,255명이 입국하였고, 나이지리아에서만 3,862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지리아의 치안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외교 공관원의 말에 호텔과 회의 장소를 대여차량으로 이동하며 한번도 외부로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라고는 관료들과 호텔 종업원들밖에 보지 못했었는데, 3천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몽골 선교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선교와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한 몽골 사람이 2013년에만 65,446명이라고 한다. 기독교 박해로 복음 전파가 힘들어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44,326명이 한

국을 방문하였다. 뿌리 깊은 불교국가로 최근엔 개방화되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22,317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만 10,311명이 방문하였고, 요르단 2,836명, 이라크 2,798명, 쿠웨이트 1,567명, 아프가니스탄 1,061명 등 수많은 중동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필자가 강의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과정에도 KOICA의 석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이라크의 쿠르드족 청년이 있었는데, 과연 평생 쿠르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KOICA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있다. 차관급, 국장급에서 과장급과 실무진까지, 어쩌면 개발도상국가의 NGO 단체들이나 선교사들이 해당 국가의 부처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을텐데, 이곳에서 이들은 연수를 받는 연수생 신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참여했던 KOICA 연수 사업에서도 몇 번 가보려고 시도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동티모르의 국토교통부 국장과 실무담당자가 연수에 참여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렇다. 이들은 대부분 복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 고급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몽골, 미얀마, 라오스, 중동 지방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평생에 만날 기회가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는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큰일을 행하고 계신다.

계량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는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과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나라들에 더 많이 나가게 하시는지 궁금했다. 국가별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과 국가별 공적개발원조자금의 비율, 국가별 인구 대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emigration)의 비율과 국내로 유입되는 사람(immigration)의 비율 등을 놓고 비교해보다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미식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개신교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1) 해외에 원조하는 ODA 자금, 2)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비율, 3)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곁에 저개발국가의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셈이다.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저개발국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저개발국가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앞에 놓여있는 선교의 과업은 엄청나다. 이 선교와 증인된 삶의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회개혁과 목회를 위해 나아가는 목회자 선교사들뿐 아니라 전문인으로 현지에 대학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병원, 적정기술센터와 연구소에서 일하며 현지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지만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직업인들의 현신이 더욱 중요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만나는 교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동료 직업인들, 국내 교육훈련 연수를 받으러 온 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전문가들, 무역과 현지 사업을 위해 개도국의 사업체 담당자를 만나는 한국의 비즈니스맨들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동참해야 한다. 2013년 11월에 개최한 개발협력 네트워크 포럼과 매월 개최하고 있는 개발협력 네트워크 세미나, 월례 예배, 아카데미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별 전문가들과 직장인들이 목회자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개발협력 NGO 단체들과 더불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통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지향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 논의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도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겠지만 하나의 교회로서 머리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면 승리가 약속된 게 아닐까?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혹은 목회자 선교사로, 혹은 전문인 선교사로, 혹은 개발협력 NGO 전문가로 현장에 나가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개발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인 프로젝트와 민간 사업들에 관여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다. 우리가 스스로 주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종으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 생명의 사랑을 저개발국가의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다.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이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뜻을 좇아 살아간다면 이 글로벌화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관하는 자가 되어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한다면 글로벌화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여 퍼지는 어둠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길가의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개발협력네트워크 문의 co_develop@naver.com / 02-533-6414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개발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와 개발협력의 네트워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YWAM 개발협력네트워크,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을 섬기고 있으며, 본 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융합분과장으로 매월 관련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본 국제개발협력 교육과 YGA

◎ 김두연 ((사) 팀앤팀 이사, (사)좋은교사운동 본부 청소년 위원장)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은 시대성에 비례한다

시대마다 선교의 방법과 형태도 변화했다. 근대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한 윌리엄 캐리의 총체적 선교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 이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한 내지선교(內地宣敎: Inland Mission)는 선교의 지경을 대폭 확대하였다.

도날드 맥가브린과 카메론 타운젠트의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개념은 지금까지 주요 과제로서 세계선교의 방향을 주재하고 있다.

기독교와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은 시대성에 비례한다. 당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질 때, 당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승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실제이고 원리가 된다. 세계의 일부인 개인은 모든 민족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드는 것이 실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이 쇠락한 학교 현장

그러나 학교 현장은 진학과 진로, 오직 성적과 성취가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 학교도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의해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락한 결과이겠지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둘째, 기독교사 헌신도의 약화이다. 기독교사의 정체성은 전문인 선교적 인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자세는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셋째, 교사에게 투입되는 업무량이 막중하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행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운동 YGA(Youth Global Action)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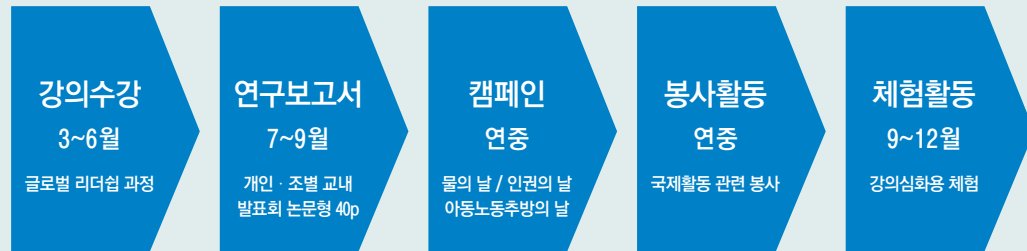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사와 기독교생,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가 약화되는 학교 현장을 목도하면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운동이 YGA(Youth Global Action)이다. 한 학교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8년간 진행된 결과 진학 효과가 증명되었고, 학교 내 변화를 주도하여 학교 당국과 교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기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30년의 교직을 정리하고 전임사역으로 나선 뒤, 2년 동안 전국 초, 중, 고 46개교에 YGA를 보급하였다.

YGA(Youth Global Action)의 기본 개념 세 가지와 5단계 진행과정

YGA(Youth Global Action)는 다음 3가지 개념을 기초로 출발한 교육과정이다.

- Youth는 청소년과 청년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과정이다.
- Global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과 고통을 동시에 살피서 지구촌의 고통 상황(Global Issue)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또 세계의 고통 상황을 해결하려고 국제사회가 진행한 모든 사업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 명명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배경과 그 이면까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구호와 개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여 향후 참여할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과정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한다.
- Action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Think Glob-

ally! Act Locally!(“세계를 품고 지금부터 행동하자”)는 구호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발전을 추구하고 왜곡된 것들을 개선하여 정상화시키는 지역사회 개발활동에서 시작하여 국제사회 개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특활, 특기적성, 동아리, 방과 후 동아리, CA(Club Activity), 상설 동아리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되 5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 강의 4회로 글로벌 이슈 전체를 파악하게 하여 학생과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세계 속에서 상호의존관계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질병과 기아, 가난과 억압, 그리고 지구환경 파괴의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강의 수강 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보고서는 논문형식 40쪽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게 하는데,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 발표회를 통해 강의 내용을 내재화시킬 수 있게 된다.
- 캠페인 활동은 유엔이 지정한 UN Day를 중심으로 지구환경의 날, 난민의 날, 공정무역의 날, 아동노동추방의 날 등 학생들이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하게 한다.
- 봉사활동은 활동처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주로 국제활동이 가능한 영역을 개발하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관련 지원센터 등에 초점을 맞춘다.
- 체험활동은 KOICA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휴·활용한다.

이 5단계 진행과정은 1년 이상의 과정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임무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J. P. 샤프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식인의 임무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과 그 경과를 살피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을 뿐 아니라 문제의 상호연계성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문가는 많으나, 지식인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진리인 성경의 빛으로 세상의 논리를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은 동의어여야 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결과는 모든 초등학교를 아울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교육, 그리고 선교

지금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는 활발한 활동과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참여함으로써 한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점차 그 폭을 넓히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독립하고 자존(自尊)한 사례는 아직 드물다. 20년 가까이 국제개발 NGO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사례를 보거나 듣는 적이 없다.

사실 ODA를 실행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확실하게 자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정치·경제적 의도로 출발하였기에 생명을 살리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또한 프로젝트 끝에 나타난 결과로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사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결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 가치체계이다. ‘세계관’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계 각 영역 간 교류의 필요성과 삼국지 조자룡에 대한 반추

최근에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알게 되었다. 30년간 교직에 있었고 기독교사로 활동해 왔으면서도 이 학회를 몰랐다는 점을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교사들에게 알릴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전문인 선교와 관련하여 이 학회에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니 각자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강한 효과를 선교 영역에서 거둘 수 있는데도 영역 간의 교류가 단절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했던 모든 영역의 핵심 인사들을 연결하고자 한다.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있으면서 교육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일치하지 않는 일상에 대해서는 늘 가책을 느꼈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조자룡이 적진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주군 유비의 아들을 구출해 오는 모습을 바울서신들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김두연 국민대에서 학사,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Global Governance를 전공하였다.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섬기다가 조기은퇴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팀앤팀의 이사이자 좋은교사운동본부 청소년위원장 YGA연구모임 대표로 있다.

개발도상국 환경 분야 국제협력 및 선교 시사점

유엔대학-광주과기원 지속가능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강수일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책임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www.gist.ac.kr)은 1994년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으로 2003년 12월 UN의 Think-Tank인 유엔대학교(UNU, United Nations University)의 협력기관으로 UN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협력기관의 자격으로 UNU-GIST 지속가능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공동프로그램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연구, 교육훈련, 자문서비스 등을 운영해 왔다. 예산은 정부로부터 매년 10억 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는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환경연구소(IER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현) 국제 환경 분석교육연구소, www.ists.unu.edu)가 2000년부터 설립되어 실제적으로 이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종 목적 중의 하나는 이 공동 프로그램을 격상시켜 UNU 산하의 정식 연구소인 UNU 지속가능과학기술 연구소(UNU-IST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를 설립하는 것이다.

UNU는 1973년 International University의 개념으로 설립된 것으로 일본이 본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1975년 일본 동경에 UNU 본부가 만들어졌고, 이후 15개국에 12개 연구소가, 프로그램은 3개국에서 3개가 만들어져 유치국 정부로부터 핵심 재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을 유치한 나라들은 독일(2개), 일본(2개),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의 선진국 외에 말레이시아, 홍콩, 가나, 베네수엘라, 아이슬란드 등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포함된다. UNU 협력기관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0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UNU-GIST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은 환경 오염 유해 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선진 생물공학의 환경 오염 저감 분야 응용, 아시아 지역의 월경성 대기 오염,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 에너지 등의 다양한 환경 관련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제안서를 받아 환경 모니터링 및 오염 저감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공동프로그램 소속의 연구자나 GIST 교수들도 이들과 더불어 현지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해왔다. 통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이 책임을 맡은 154개의 과제들이 3억 3천만 원정도의 연구 지원을 받았고, 이중 ASEAN 국가들의 연구자들은 67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의 환경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였고,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이 고가의 분석 장비를 이용할 수 없어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 GIST로 가져와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연구자들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논문의 질도 높아졌다. 반면, 이러한 고가 분석 장비를 당장에는 구입할 수 없어, 매우 의존적이 되는 문제점에 직면했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개발도상국들의 연구 장비 및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는 것이며, 현지 연구실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및 분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프로그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학사 이상 연구자나 대학원생들이 국제환경연구소에 와서 4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며 연구소 박사들이나 환경공학부 교수들의 지도 아래,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보고서와 구두 발표 등으로 마무리한다. 연구소에 머무는 동안 인턴 학생들은 1~2 과목의 환경공학부 강의를 듣게 되며, 정규 학생으로 입학시에는 수강한 과목들에 대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인턴 학생들에 대해서는 왕복항공권, 매달 40~50만 원의 생활비와 저렴한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인턴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중 10%는 정규 학생으로 입학하여 GIST를 재방문하였다. 인턴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환경전문가를 양성하여 개발도상국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지한파(知韓派)를 만들어내거나 우리



나라를 알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함께 배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 사이에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이후 이들이 연구자, 대학교수, 정부관료 등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공동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도움과 홍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환경연구소는 매년 한 차례 국제워크숍을 10년간 개최해 왔다. 선진국의 유명 과학자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 교수,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각국의 환경 이슈들을 발표하고 선진 환경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상호작용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해 왔다. 지난 10년간 선진국 강사 100여 명, 개발도상국 참가자 1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10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재원을 제공하고 UNDP가 관리하는 KOREA-UNDP 프로젝트를 3년간 총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다. 5차례의 빈곤 퇴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교육 훈련 워크숍을 통해 50명의 정부 연구자, 수질 관리자 및 수질 연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국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속한 나라들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질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양질의 안전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퇴치에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고 나름 수치적으로 성과를 얻었음에도 항상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현장 중심, 문제 중심의 연구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데려 와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나라에 시료를 보

내어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해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실험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심어주고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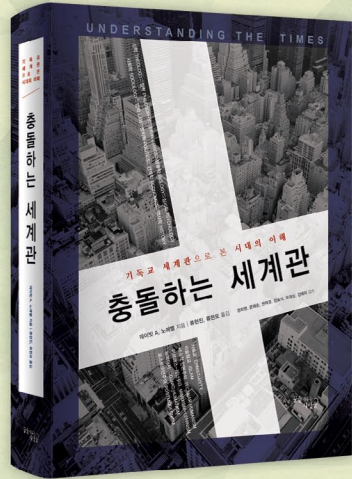
이러한 부분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 모델로서 RDI(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Cambodia)를 소개하면서 개발도상국 대상의 연구 개발과 선교에 대한 시사점을 적고자 한다. RDI는 2000년도에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부 기구(NGO)이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독창적인 자원과 적정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중심은 기술, 교육과 마음(heart)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을 모아 대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전략의 중심은 현지인들과의 관계 형성이다. 마을에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시킨다. 전략이 중심에서 밖으로 향하면서 팀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함께 일하기, 교육, 녹화, 가축 기르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과정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양방향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더 큰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세밀한 섬김이 가능하게 된다. 더 큰 수준은 기술 개선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인데, 학교에 water system이나 화장실, 물탱크 등을 설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학교와 수주 내지 수개월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학교 직원과 가족들을 알게 되고 우물을 설치하기도 하며, 신뢰가 형성되어 교육적 이야기를 진행(story-telling)하거나 교육 영화 관람, 지역 수준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국가 수준

에서는 스튜디오에서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영방송에서 방송한다. 이러한 일은 RDI를 돕는 자원 봉사자들이나 집단의 도움으로 가능하며, 단기 여행 중 RDI 비전을 이해하여 헌신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의 전임 직원들 중에는 캄보디아 단기 방문 후 참여하게 된 이들이 많다. 단기팀들의 노력을 활용하여 캄보디아와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RDI가 다른 개인이나 외부 기관들에 캄보디아와 그 국민들을 돕도록 하는 도구(Vehicle)가 되고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개발도상국 현지에 연구개발을 도와줄 연구소 내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조직들이 설립되어 전문가와 선교사들이 함께 일하거나 헌신된 전문 연구 인력에 의해 선교와 연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심에는 RDI의 경우처럼, 마음, 기술, 교육, 선교가 중심에 있고, 관계 형성, 지속 가능한 변화, 신뢰 구축, 현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현지의 Needs 파악 및 공급에 대한 것들이 잘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가 설립되어 발전하기까지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며, 보이는 성과에 대한 조급함도 없어야 한다. 우리의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지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며 따라야 할 것이다.



강수일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학하였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광주 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책임연구원(파견)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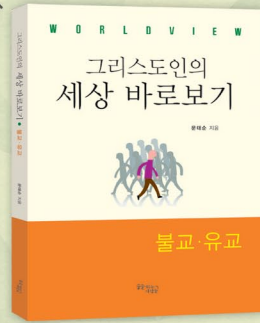


데이비드 A. 노에벨 지음 | 류한진, 류한모 옮김 | 정가 35,000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념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것들을 초래한 비성경적, 비현실적, 더 나아가 실재에 관한 비논리적인 가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주제 신학 / 철학 / 윤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경제학 / 역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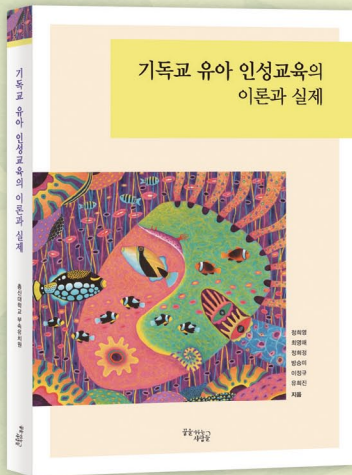


불교, 유교 | 문태순 지음
철학, 심리학 | 정희영 편저
신학, 역사학 | 권태경 편저
사회학, 윤리학 | 유경상 편저
정치학, 경제학 | 강효식 편저
정가 11,000원(각 권)



학문의 기초, 기독교 세계관으로 풀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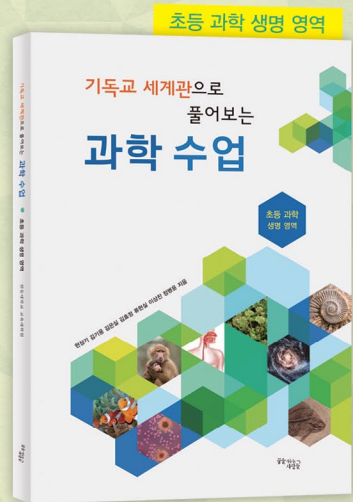
이 책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기독교, 이슬람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주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학문의 각 영역에서 위의 세계관들이 각각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와 세계관에 따라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정희영 외(홍신대학교 부속유치원) 지음 | 정가 20,000원

영적인 부분이 통합된 기독교 인성교육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고려된 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인성교육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영적 존재이므로 지, 정, 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기초를 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배양시키는 것임을 교육 현장의 실재를 토대로 설명한다.



원창기 외(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지음 | 정가 12,000원

과학교육 현장의 기독교사들을 위한 통합교육모델

초등 과학교과 과정 중 생명 영역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통합적인 교과 내용을 제시한다. 초등 과학교과 및 각 단원의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재조망함으로써 단원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원은 기존 초등 과학교과과정에 포함된 단원들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이슈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북한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한화룡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선교에 임해야 할까?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해 남북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북한선교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60년 역사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I. 4대 신화 - 1950~1980년대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떤 모양이든 60년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해 온 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 필자는 그 근거를 4대 신화로 집약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위대한 수령님 - 해방신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30년대와 40년대 초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이러한 경력을 과장·왜곡하긴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조선을 해방시킨 것으로 알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2. 미제에게 백 배, 천 배의 복수를 - 승리신화

북한 주민들은 1950년 6월 25일 북침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을 김일성의 영도 하에 물리치고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미제가 100년 전부터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획책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북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엄청난 폭격으로 남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증오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3. 세상에 부럼 없iera - 낙원신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영도 아래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탈북자가 발생하는 오늘날과는 반대로 가난한 중국 동포들이 살 길을 찾아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4.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통일신화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폭정 아래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조선 동포들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지상최대의 과업으로 여기고 오랜 세월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왔다.



II. 5대 현상 - 1990~2000년대 북한 사회의 변화

2014년 현재 이러한 4대 신화는 그 효력을 거의 상실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으로 받드는 유일체제의 비합리성으로 199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 다음과 같은 5대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부정부패 만연

현재 북한에는 뇌물 수수와 도둑질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물자부족이 만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직장, 공장, 대학, 군대 모두 예외가 아니다. 한 마디로 북한 사회를 지탱하던 물질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2. 미신행위 증가

요즘 북한에서는 점을 보는 등 미신 행위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난으로 사회가 불안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당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 마디로 북한 사회를 지탱하던 사상적 기반마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3. 아사자 속출

1990년대 초반 식량난이 악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죽으로 버텼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옥수수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풀죽이나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급속히 상황이 나빠지더니 1998년까지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4. 탈북자 증가

1990년대 중반부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동안의 누적 건수는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도 중국에서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외부의 실상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5. 민심 이반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다. 과거에는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과 신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통제와 감시 때문에 불만을 털어놓거나 비판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 친척들에게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 주민들의 내면을 지배해온 신화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해체 현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교회는 북한의 미래에 비대한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선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III. 북한의 미래와 통일선교

2014년 현재 북한은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북 경협 중단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수선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과 공포로 통치해온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단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그동안 감추어졌던 외부 세계의 진실이 알려지고, 자유, 민주, 인권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을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가 아닌가.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당분간 대내적으로는 선군 정치체제를 지속하면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을 압박해 나가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쌓여온 내부 모순과 불만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시에 닥칠지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 사회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통일한국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면서 준비하는 교육을 거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는 이미 국내에 들어온 2만 6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돌보면서 다가올 통일을 실제적으로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탈북자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남과 북이 통일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을 선도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정립해서 성도들에게 명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이 민족통일과 북한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국 교회는 평화통일, 복지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며,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사는 신한국 시대가 열리고, 북한 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가 재건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는 북한 당국이 인정한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험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 접촉 및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 그리고 국내 탈북자 양육 및 해외 탈북자 구출 사업 등 다각도로 북한 선교 사역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공황과 자비를 베푸사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한화룡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조교수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D.Min.)하였다. 저서로 『도시선교』, 『4대 신화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전쟁의 그늘: 1950년 신천학살사건의 진실』(VP, 근간)이 있다.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 (www.iguw.de)

최용준 (한동대 교수, 학술지<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독일에도 신앙과 다양한 학문 및 사상의 통합을 추구하는 신앙과 학문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신앙과 학문간의 대화를 증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공헌한다. 셋째, 다원주의적 세계에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강의, 세미나 그리고 출판사역을 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위르겐 슈피츠 박사(Dr. Jürgen Spieß: 1949-)로 딜렌부르크(Dillenburg)에서 출생하여 기센(Gießen)과 뮌헨(München)에서 공부한 후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사 과정 중 그

리스도인이 되었고, 1984년에서 1999년까지 독일기독학생회 SMD(Studenten Mission in Deutschland)의 대표로 일했으며,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부르크(Marburg)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소장으로서 섬기고 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국내외 여러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의 노보시빌스크에 있는 대학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그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자 소망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아내와 자녀)을 잃은 그는 이처럼 부활을 강조하며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재혼 후 얻은 딸이 다운 신드롬 장애가 있어서 의료 윤리에 대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 (WER LERNEN WILL, MUSS GLAUBEN).”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위르겐 슈피츠 박사 외에 이 연구소의 자문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마르쿠스 하이데(Markus Heide), 마르코 헬비치 박사(Dr. Marko Helwich), 피터 쿠델라 박사(Dr. Peter Kudella) 그리고 하트비히 슈누르(Hartwig Schnurr)이다. 기타 후원 이사들은 헬무트 브뤼크너 박사(Prof. Dr. Helmut Brückner), 울리치 에이바흐 박사(Prof. Dr. Ulrich Eibach), 허버트 하프 박사(Prof. Dr. Herbert Haf), 페터 헤겔러 박사(Prof. Dr. Peter C. Hägele), 한스 하텐하우어 박사(Prof. Dr. Hans Hattenhauer), 하인즈페터 험펠만 박사(Prof. Dr. Heinzpeter Hempelmann), 라인하르트 험펠만 박사(Dr. Reinhard Hempelmann), 미카엘 헤르스트 박사(Prof. Dr. Michael Herbst), 로프 힐러 박사(Dr. Rolf Hille), 존 레녹스 박사(Prof. Dr. John Lennox: 영국 옥스포드), 라이너 마이어 박사(Prof. Dr. Rainer Mayer), 라이너 리스너 박사(Prof. Dr. Rainer Riessner), 헤르만 사우터 박사(Prof. Dr. Hermann Sautter), 잉어 샤러 박사(Prof. Dr. Inge Scharrer), 지그프리트 쉐러 박사(Prof. Dr. Siegfried Scherer) 그리고 만프레드 지발트 박사(Prof.

Dr. Manfred Siebold)가 섬기고 있다. 이 연구소의 웹사이트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WER LERNEN WILL, MUSS GLAUBEN).”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학문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신학, 자연과학 그리고 윤리학 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고, 출판물들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 행사도 개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출판물들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을 링크로 소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 다소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영문으로 된 논문들도 간혹 있으므로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룸(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필름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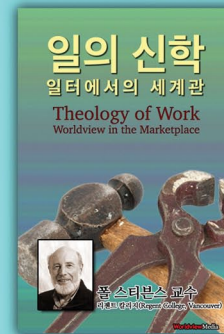
지원 안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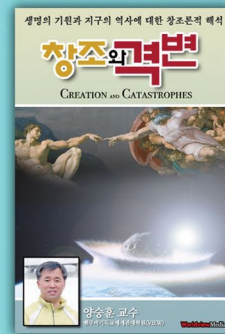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A)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 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 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기독교세계관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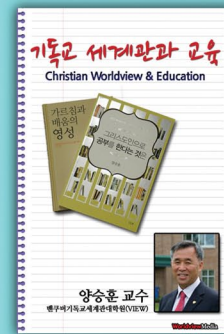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 강의를 전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폴 스테인하우스 교수
18개 강의 (\$36)



양승훈 교수
24개 강의 (\$24)



양승훈 교수
30개 강의 (\$30)

- 구입은 1개 강의씩 날개로나 또는 전체 강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1년 간 다양한 기기에서 제한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PayPal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강의는 Watch Later와 VOD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wvmedia/vod_pages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우리의 꿈 이야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황영철 (성의교회 목사)

이 책은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한다. 아마도 철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세계관 교육으로는 열매가 없다는 짝퉁한 깨달음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의 세계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뭔가 빠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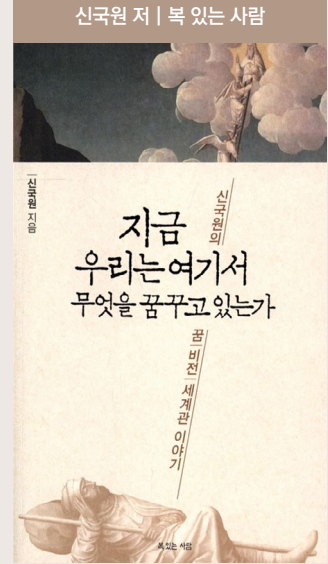
세계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구미의 세계관 학자들 사이에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 상륙하여 그 첫 작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왜 철학적 접근이 힘을 못쓰는 것처럼 보일까? 철학적 접근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세계관을 논의하고 거기서 얻은 감동과 힘으로 살던 세대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요즘은 전통적인 철학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 진리를 서술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혹은 저자의 말처럼 비전텔링의 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성경의 방법에 접근한 방법으로 보인다.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과 전수에서 그러하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구약의 신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전수받았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아담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 놓고 '내가 너희 어머니 하와와 에덴동산에서 살던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뱀과 최초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담의 아들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나 고약한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만다. 노아도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 아들 셈은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자던 일로 집안에 일어난 풍파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그들은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준다.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삭에게,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해 준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흐르고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따라서 성경의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타당하다. 성경이 사용한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무익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은 아니다. 희랍적 관점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매우 촘촘한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논리적 전개는 신약 성경의 백미이다. 구약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철학적 접근 방법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저자가 성경을 이야기로 풀기로 했으니, 이제 어떤 가닥을 잡아야 할까? 성경은 아주 많은 가닥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진행되는 대서사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규모와 성격의 글에서는 어느 가닥 하나를 잡아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 저자가 잡은 가닥은 비전(vision)이다. 저자는 비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듯하다. 이전 책인 <니고데모의 안경>도 결국 비전의 문제가 아닌가? 하긴 저자가 평생 씨름한 것이 세계관이니 비전이라는 가닥을 잡은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다른 가닥을 잡았다면 도리어 이상했을 것이다(예를 들면, 성전, 메시아, 언약 등).

그래서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비전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물론 그 비전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그들이 받았던 비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자신의 가장 완전한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



님의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긴 역사를 끌고 가다가 마침내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나는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역사의 한순간을 살고 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 혹은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몸통이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한 두 개의 비전이 부각된다. 하나는 당연히 에덴의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비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계시와 아브라함에 대

한 계시가 된다. 에텐의 계시와 아브라함 계시는 일종의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룬다. 아브라함 계시는 신약의 교회와 대응되고, 에텐의 계시는 완성된 나라와 대응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다.

에텐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완성된 나라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그것의 성취인 신약의 교회는 창조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언과 성취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이것이 비전의 전 과정에 대한 이 책의 설명이다. 1장 에텐의 비전은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이후 새 출발까지의 과정을, 2장은 아브라함, 3장은 야곱, 4장은 요셉을 다룬다. 5장은 모세이다. 6장은 여호수아, 7장은 사무엘, 8장은 다윗이다. 9장은 이사야, 10장은 에스겔, 11장은 다니엘이다. 12장은 예수님이다. 13장은 바울, 14장은 사도 요한이다.

이 구조는 크게 창조에서 노아의 홍수, 족장 시대, 모세와 가나안 점령, 왕국시대, 선지자의 글, 예수님, 바울과 요한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함으로 내용을 채운다. 결국 저자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몇몇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을 이끈 비전과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셈이다. 거기에는 비전에 충실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에 완전히 충실하지도 완전히 불충실하지도 않았다. 인간인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충실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불충실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흠이 있고 넘어졌지만, 다윗이 전체적으로 주어진 비전에 충실했다면 사울은 전체적으로 불충실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가 삼손을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실이 조금 무색해지는 느낌이다.

저자는 일종의 신앙적 에세이 모음집 스타일을 추구한 듯하다. 이야기로 풀어내야 하니 지나치게 학문적인 스타일은 안 된다. 그렇다고 사적인 대화 스타일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글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볍지도 않은 에세이 형식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교라고 할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무게를 지닌 글, 이런 글이 사실 쓰기 어렵다. 저자는 때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양념 삼아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해 나간다. 이것은 많은 글을 써온 저자의 필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읽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려운 시도를 했다.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는 단순히 사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이것이 세계관의 본질적인 난점이다. 엄밀히 말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로 세계관이

라면 정상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계관이 없겠는가? 그렇다면 세계관의 문제는 결국 두 비전의 충돌이다. 하나는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가진 비전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의 비전을 버리고 나의 비전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도전 앞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의 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천국 비유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같이 그 비전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독자들이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게 하려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극을 열심히 소개한다. 물론 비전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행복하게 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비전은 세상살이의 행·불행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비전을 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을 하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온통 사로잡아 결국 자기를 완전히 불사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세력,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소진하고 가장 충만한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 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부터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을 거쳐 면면히 흐르는 전통이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살고, 현재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산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과 소망임을 저자는 충실히 밝힌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고 전수해 왔다. 신자들이 매주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실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만큼 자기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쓰여진 이 책 한 권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작은 책이 그 방향을 보여주고 그 필요를 일깨워 준다면 충분히 성공한 것이다.



황명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학과 영국 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를 연구하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중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

의료, 생명을 담다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학과 의료

◎ 박준현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기독 의료인이신 아버지(박재형 교수)와 작은아버지(박상은 원장)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신앙과 의학 사이의 간극에 점점 무디어져 가고, 효율이란 명목 하에 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피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프랜시스 슈퍼(Francis A. Schaeffer)는 말하기를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그 시대가 생명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찌 그것이 한 시대에 대한 평가뿐이겠는가, 의료인의 삶 또한 그의 다른 업적이 무엇이든 그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했는가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서평 의뢰를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생명에 대한 나의 고민이 너무도 알고도 원칙이 없었음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다.



현실: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의료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누가복음 18:8)

신자유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본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료인 중 몇이나 될까. 저자는 생명공학도, 의료도 자본과 결합하여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신앙을 가진 의료인이 진정 신앙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기엔 너무도 힘든 환경이다. 진료하고 연구를 할 때 힘을 다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걸음을 걷게 된다. 그러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우리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탐욕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윤리의식은 점점 질식해 간다. 만연한 상업성 속에서 우리는 저자의 표현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필요,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연구하고 시행해 주는 자본주의자들의 종교가 되어가는 첨단 의학. 이 책은 그러한 풍조에 발맞추어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는 독립선언문과 같은 책이다.

김민철 저 | 아버서원



해답: 각론이 아닌 원론으로부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이사야 26:3)

본말이 전도된 본질과 수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론이 아니라 원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생명의 기원, 생명의 시작, 생명의 질, 그리고 생명의 종말, 이 네가지 영역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는 기본 원리가 된다. 절대진리,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인정해야 이 원리들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다. 이 책은 복음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진리를 가진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모든 의료 상황 속에서 기독교 의료인들의 선택과 관련하여 먼저 고민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앞으로 함께 고민할 점들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진보된 기술은 인간을 전인으로 보기 보다는 기능을 하는 부속들의 집합체로 환원한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다른 어떤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윤리, 철학, 의학의 기원, 첨단의학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처럼 많은 영역에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리를 잊지 않아야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생명을 지배·통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겸허하고 마땅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과제: 접점은 없는 것인가?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이 책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자의 세계관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나의 입장을 잘 견지하는 것을 넘어서 절대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접점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자카리아스(Ravi Zacharias)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실이 도덕성의 상실을 낳고, 이러한 도덕성의 상실은 책임감의 상실, 나아가 사랑의 상실을 낳게 된다고 보았다. 절대진리를 기억하며 도덕성을 세워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우리의 책임감 넘치는 사랑이 접점이 되어 절대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설득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들의 도덕성이 깨어나고 그들 또한 절대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의료를 행하는 우리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수고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한다. 똑같이 처방을 내리고, 똑같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의료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겠다.

윤리, 철학, 의학을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쉽게 읽혀 지지도 않을 뿐더러 단순해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다. 또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던져지는 질문들은 함께 토론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주제들이라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원칙들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다시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만연한 상업성과 유물론에 우리의 관점이 흔들리고 도전 받을 때 두고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책이며 현재의 나의 위치와 우리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책이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본 이 책은 또 다른 난쟁이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난쟁이들이 또 한 사람의 거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거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박준현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있으며 사회정신의학 학회지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조현병학회 정회원, Research Trainee in Mayo Clinic Molecular Pharmacology Experimental Therapeutics이다.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인 유교 다시보기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문석윤 (경희대 철학과 교수)

책의 제목과 부제가 전하는 대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유교의 모든(?) 것에 대해 신학자가 쉽게 풀어쓴,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포함하여 중국과 한국에 걸친 유교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대에서의 유교 담론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유교 비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내용을 300쪽 남짓의 짧은 분량의 책 속에 알차게 담고 있다. 꼭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유교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저자인 배요한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 같은 학교에서 신학사(B.A.)와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은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동양사상』(1999, 동인서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기동 교수의 지도아래 유학을 전공하여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학교에서, 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유교와 서양철학 및 기독교 사이의 비교종교학 혹은 비교철학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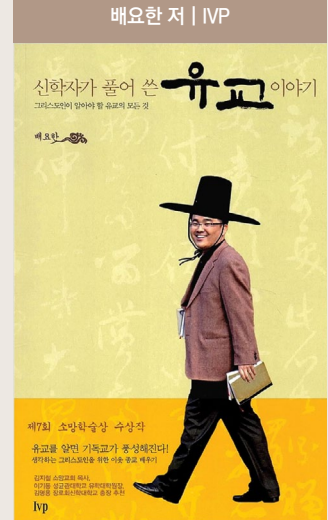
업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보스턴 유교’(Boston Confucianism)의 대표주자인 로버트 네빌(Robert C. Neville) 교수의 지도아래 《한국 종교 전통에 있어서의 신-인 관계 연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로 신학에 근거를 두고 유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신진 학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책을 집필하기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일반인들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쓴 이 책은 유교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과 <서론>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두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 종교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비(非) 복

음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공감한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통 종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전통 종교에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자연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지식과 심오한 사상, 실천적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전통 종교의 가르침은 비록 온전하지 못한 파편적인 진리로서 직접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교가 그러한 전통 종교 중에서도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수행 노력을 통해 이룬 가장 고상한 것 중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종교 전통이기에, 유교를 아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원과 거룩한 삶, 그리고 일상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경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편으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현대의 다원주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정석 교수의 책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절대진리와 윤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를 사용하여 인류의 급격한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인정하는 가운데 타 종교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본론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유교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을 논하였다. 유교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성으로서 “사사로운 욕심”을, 인간의 본질적 가능성으로서 “성인(聖人)의 경지”를, 그리고 도약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거경(居敬: 경에 거한다)과 궁리(窮理: 이치를 궁구한다)”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기독교의 “죄”와 “예수를 닮은 삶” 그리고 장신대학교의 학훈(學訓)이기도 한 “경건과 학문”에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거경’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른 삶의 태도로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풀이한다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와 통하고, ‘궁리’는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

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삶이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더 바른 모습으로 바뀌는 '성덕지학(成德之學: 덕성을 이루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학문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는 중국의 농업 전통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仁)과 예(禮)를 기본 가치로 설정하며, 인간 존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수양(修養)과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하였다면, 서양철학은 그리스의 상업 문화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예의와 법을 기본 가치로 설정하며 인간의 개체성을 강조하고 수학, 과학과 논리학을 발전시켰다고 하여, 철학으로서의 유교의 특성을 서양철학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자(孔子)로부터 맹자(孟子), 순자(荀子)의 초기 유학 사상에서 한당(漢唐) 시대의 유학을 거쳐 송명(宋明) 시대의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유교의 전개를 비교적 상세하게 개관하고, 청대(清代)의 유학과 근대의 유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로의 유교의 전래에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주자학(朱子學), 그리고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등의 유학자를 필두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瑀)의 유학 사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조선 주자학의 특색으로서 '천인무간(天人無間: 인간은 본래 하늘과 다름이 없다)' 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의 반(反) 주자학적 사상과 실학(實學)의 대두와 서학(西學)의 수용과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로써 저자는 유교 발생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유교의 역사적 전개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셈이다.

제4부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최근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고, 또한 현대 한국에서 한국 유교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교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그는

서구 지성계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을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현대화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의 관점에서 유교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섞어 언급하였다. 그와 함께 그는 최근 중국 기독교계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5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유교가 다른 종교 전통에 비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학문성을 강조하는 종교 전통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유교에서 배워야 할 점으로, 첫째, 매 순간 성실하고 공경한 삶의 태도로 내 삶의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성덕지학을 지향한다고 하는 올바른 학문의 태도, 둘째, 개인 삶의 수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태도, 그리고 셋째,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유교적 영성(靈性)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들었다.

저자는 유교 문화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제사 혹은 제례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혹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라고 정의하고, 유교에서 제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 인(仁: 孝)의 형식적 표현으로서의 예(禮: 祭)를 강조하는 사상적 측면과 그 종교로서 그리고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종교적 측면에서 각각 살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유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점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이점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제삼(第三)의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철학적인 용어로 양자를 설명하는 방

식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서술 하였던 유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유사성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차이를 음미함으로써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단호하게, 이른바 선교적 관점에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유교에 대해, 그리고 불교나 도가 사상 등 다른 동아시아 종교 전통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인 자각과 노력으로 모든 사욕 또는 죄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구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답변으로부터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유교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 서구 신학의 인간론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을 강조함으로써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측면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결국 구원론에서 칭의론(稱義論)을 강조하는 대신 성화론(聖化論)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의 본질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유교의 인간 이해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책이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인 유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종교 전통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서술을 마쳤다.



문석윤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朝鮮 後期 湖洛論辨의 成立史 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유교와 기독교>(<신앙과 학문> 3권3호, 1998), "중국 사상의 생명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2000, 콜란출판사)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전통 종교 특히 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에 기초한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저자는 유교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세계관적 비판 보다는 그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전통 종교가 여전히 그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막연한 반감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 기초한 것이다. 언젠가 저자가 더욱 깊은 수준에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혹은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관한 중후한 저작을 선보일 것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의 비판, 혹은 진지한 대화의 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16, 17세기 명(明) 나라에서 활약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쓴 『천주실의(天主實義)』(송영배 외 옮김,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일독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가톨릭 배경을 지닌, 송명유학과 중국종교 연구자로서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 줄리아 칭(Julia Ching, 秦家懿)의 『유교와 기독교』(임찬순·최효순 옮김, 1993, 서광사)와, 칭 박사과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쿵(Hans Küng) 박사의 공저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이낙선 옮김, 1994, 분도출판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또한 유교 및 전통 종교에 대한 세계관적 비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점식 교수의 『세계관과 영적전쟁』(1995, 조이선교회출판부)을 추천하고 싶다.

더불어 함께!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 중 공공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1. 대중교통은 행복을 타고

대중교통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버스에는 다른 색의 등받이 커버로, 지하철에는 차량 지정석으로 구별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약자가 된다. 또 임산부나 임산부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예 노약자와 임산부석은 비워두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버스, 지하철, 건물 안,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한다. 조금의 배려와 매너가 있으면 그 안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어폰의 음악 볼륨을 낮추자. 조용한 대중교통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웅건만 간단히 하는 통화매너가 필요하겠다. 또 사람이 많은 거리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부딪혔을 때에는 먼저 "미안합니다." 사과하자. 작은 배려와 매너에 불편한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2. 당연한 준법과 투표 의무

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공익을 위한 불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대법의 정신을 기독교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사회적 표현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실천 가능한 '자발적 불편'을 찾을 수 있다. 일반 법규들의 문구뿐 아니라 취지를 준수하는 것, 일반적 사회관행이 위법일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유도하는 것, 나아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 사회가 악행에 눈 감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비중에 맞게 표현하는 것, 상대방이 위법하지 않도록 먼저 신뢰하고 무리한 거래관행을 제시하지 않는 것, 준법을 넘어서 현행 법령과 제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를 후원

하는 것,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 등이다. 투표에 있어서는 본인뿐 아니라 이웃들이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 부재자투표 등 용이한 제도에 관심을 갖고, 상대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며, 선거 관련법 역시 어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감시·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지구를 위한 가장 멋진 일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활용이다. 효과적인 재활용은 탄소발생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 '아나바다' 운동 등의 재활용 문화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리폼 문화 역시 매우 유용하다. 이를 '리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의 진화라 일컫는다. 업사이클은 물품을 창의적 방식으로 용도전환해 '새 제

품'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다. 유용함에 아름다움을 덧입혀 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입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업사이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감소이다.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는 모두 벌목에 동참하고 있다. 연 평균 국민 1인당 종이 소비량은 무려 181.4kg이라고 한다. A4용지로 환산하면 1명이 1년간 약 38,784장의 종이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30년생 원목 세 그루 이상에 해당한다. 재생종이·이면지,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꼭 필요한 자료만 출력하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 등으로 나무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 각각의 일회용품이 썩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종이컵 생산을 위해 매년 1,000억 원 이상과 20년 된 나무 1,500만 그루가 소비되고 있고 1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 보자. 또한 20년 된 나무 70만 그루를 희생시키는 나무젓가락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과 건강을 지키자. 만약 일회용품 사용을 했더라도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기르자.

4. 상다리가 휘도록 차린 음식,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힘겹게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하루 세 끼, 푸짐하고 넉넉한 상차림, 모자란 것보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음식문화가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끼니걱정은 사라졌으나,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남았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문화,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전체 쓰레기량의 28% 이상을 음식물이 차지하고 있다. 생산, 유통, 조리 단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자.

5. 전기절약으로 창조세계를 지키자

매년 이슈가 되는 전력난,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겨울엔 전열기 대신 내복을 입어 전기 사용을 줄이자.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형광등의 60% 이상을 경제적인 LED 등으로 교체하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의 스위치를 꺼 대기전력을 없애고,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확인하여 구매하자.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

+plus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1. 재생종이란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재활용한 것이다.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든 것이 일반 종이라면, 재생종이는 폐지가 그 원료이다.
2. 재생종이 공정 또한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지만 일반 종이 공정보다는 환경에 더 유익하다.
3. 시중에서 판매하는 재생 복사용지에는 비교적 평량이 적은 '중질지'와 '갱지'. 그보다는 높은 '친환경 복사용지'가 있다. 평량이 적은 중질지와 갱지의 경우 복사기에서 걸림, 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복사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평량이 75g 이상인 '친환경 복사용지'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4. 기윤실이 추천하는 재생종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조지나 레자크지, 복사지에 비해 더 저렴하다. 다만,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좋은 질의 종이들은 주로 수입 재생종이로 고가이다.
5. 모든 사무실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4 복사용지를 재생 복사용지로 바꾸는 것이다. 교회 주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연간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150,000	인건비	일반급여	3,400,000
	임원회비	1,250,000		기타급여	550,000
	일반회비	4,162,500		소계	3,950,000
	기관후원금	4,3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기타후원금	1,044,000		사무실관리비	409,260
	월보구독료	694,000		통신비	946,930
	CTC후원금	340,000		우편료	614,150
	사무실후원금	500,000		소모품비	199,800
	기타	0		비품	1,055,100
				식비	246,630
		복리후생비		1,108,290	
		컴퓨터		1,064,880	
		회의비		209,030	
		교육비		180,000	
		회계용역비		220,000	
		기타		2,202,231	
		소계	9,006,301		
	소계	13,440,500	연구지원비	도서구입비	0
				CTC후원금	328,900
기타수입	KT환급금	237,230	출판(회지)	소계	328,900
	기타수입	306,060		월드뷰구입비	2,000,000
	일반이자	0		발송비	387,000
	결산이자	0	소계	2,387,000	
	소계	543,290	기타	목적기금 예치	20,000,000
		소계		20,0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400,000
	학회행사수입	1,350,000		학회자료제작비	1,030,000
	학술지심사비	560,000		학회홍보및기타	1,342,870
	저작권료	0		학회기타	656,500
	소계	2,010,000		소계	3,429,370
당월 수입액	15,993,790	당월 지출액	39,101,571		
전월 이월액	43,758,094	차월 이월액	20,650,313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2,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600,000	
				기타급여	0	
	소계	2,100,000		소계	1,60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000,000	제작비	교정 및 디자인비	1,282,000	
	도서판매비	0		편집비	300,000	
	사무실후원금	250,000		인쇄비	2,369,180	
	기타수입	158,270		기타제작비	100,000	
	소계	2,408,270		소계	4,051,180	
	미디어 아카데미	월드뷰판매비	2,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도서판매비	0		복리후생비	617,670
		사무실후원금	250,000		회계용역비	110,000
		기타수입	158,270		식비	12,500
		소계	2,408,270		비품	275,000
미디어 아카데미		미디어기타	0	기타지출	회의비	41,000
		소계	0		소계	1,331,170
					세금	19,830
					기타	14,000
					소계	33,830
당월 수입액	4,508,270	당월 지출액	7,032,180			
전월 이월액	48,911,290	차월 이월액	46,387,380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월현, 구재형,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준현, 박지만, 생명의강, 영음사, 이평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희정, 하태실,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은, 김성찬, 김영호, 김은경, 김정명, 김정성, 김정은, 김재우, 김준, 김지수, 김철수, 김태윤, 김향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택, 박승룡, 박진희,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선영, 신찬웅,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익신,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영홍, 이윤희, 이인수, 이정미, 이종혁, 이항수,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정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장법채,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권기웅, 엄지은, 최원길 7천5백 강찬진, 권상순,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은민, 김효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양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석현, 강승호, 강연정,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고현경,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화, 김고운,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우,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법식, 김보경,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택, 김승호, 김양호, 김영민, 김영옥,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중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임, 김혁,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홍제, 김호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성균, 박성인, 박시운,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미,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소중하,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신경우,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진성, 신현주, 신형준, 신호영, 신효영, 안병일,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행모, 양혜원, 오경욱,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원선희,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동준, 유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동수, 윤상현, 윤천석, 이갑두, 이강, 이경숙, 이계성,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다은, 이대규, 이명동,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상우, 이상수, 이상환,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용국, 이원배, 이원준,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정주,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수연, 임신일,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양종태, 장인숙, 장대준, 전동일, 전영희, 전성규, 전종화,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수, 정현주,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향, 조재천, 조주영,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최상일, 최성일,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최호영,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허천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형희경,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고상섭,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2만 강대훈, 강용란, 김세광, 김완중, 김용식, 김우신,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배은진, 변희지, 오한나, 우시정, 유창은, 이근, 이명희, 이인아, 이희진, 정문선, 제양규, 조창근, 추진연, 한인경, 홍선호 2만5천 문석순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준희, 김지연, 문준호, 박상진, 박선현, 박영주, 서성록, 서영희,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지연, 임희옥, 장수영, 최용준, 추대화, 황정진 4만 전정원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재,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5만5천 조은국 6만 강진구 8만 권정아 10만 김의원, 손봉호, 송인규,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곽연미 20만 김원수, 박상은 21만 정영록 60만 유재봉 80만 김승욱 100만 권성윤

계 9,140,50원

기관후원

5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집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개봉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수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카이스트교회
20만 마포중앙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계 4,300,000원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나뻬띠”

갑돌이가 휴가차 프랑스에 갔다. 그가 아는 프랑스어란 파리 ‘바깥’과 ‘똥레쥘’ 정도인데 빵 가게인 줄은 알지만 그 뜻은 모른다. 투숙하고 있는 한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프랑스 남자 하나가 옆 자리에 앉으면서 “보나뻬띠!” 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줄 알고 갑돌이는 벌떡 일어나서 “김갑돌!” 하고 허리를 굽혔다. 다음 날 아침 역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프랑스인이 또 “보나뻬띠!” 하지 않는가? 두 번이나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갑돌이는 그 전날처럼 벌떡 일어나서 “김갑돌!” 하고 허리를 굽혔다.

그날 오후 프랑스어를 좀 아는 한국인을 만났다. 갑돌이는 “보나뻬띠”란 이름을 가진 프랑스 사람이 두 번이나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게 프랑스의 풍속이냐고 물어보았다. 그 한국인은 크게 웃으면서 “보나뻬띠”(bon appétit)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맛있게 잡주세요.” 하는 인사라고 알려 주었다. 갑돌이는 좀 창피했다.

그 다음 날 아침, 갑돌이가 식당에 가니까 그 프랑스 남자가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돌이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음식 접시를 들고 그 사람 옆에 앉으면서 “보나뻬띠” 하고 먼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 프랑스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김갑돌!” 하고 허리를 굽혔다.

외국어 사전은 대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WORLDVIEW NEWS

[매월/모집] 기독 대학원생

기독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할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일시 2014.7.25(금)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용산구, 4호선 숙명여대입구 인근)
- 멘토 (7월) 주해홍 목사(〈통큰통독〉 저자)
- 문의 jihakyun@daum.net / 02-754-8004
- ※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IEW 간담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간담회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7.15(화) 오후 7시
- 장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학회지] <신앙과 학문> 19권 3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이 2014년 3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9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 문의 02-3272-4967(학회)

[임원] 2014년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2차 이사회

2014년 2차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해당임원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7.7(월) 정오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신효영 간사)

[임원모임] 2014년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임원모임

해당임원 분들의 참석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4.7.7(월) 오후 3-8시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신효영 간사)

사무국 보고

김의원 부이사장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9일(월) 백석대학교에서 백석대 부총장으로 섬기시던 김의원 교수(前 총신대 총장)님의 정년퇴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수고에 감사와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교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더

the



선과 정혜영의
행복 활동기!!

선
&
정혜영



오늘 더 사랑해
B5변형 | 216면 | 13,000원
오늘 더 행복해
B5변형 | 184면 | 15,000원



행복해



홍서샤.

<http://www.hsbooks.com>